

‘인문학 부흥 위해 독자 눈높이 맞춰야’ 목소리

인문학 출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일어
청소년 인문서, 여성 타깃 문고판 인문서 등
출판전문가들 ‘저자와 호흡하며 독자 생각한 출판’

출판계 주변에선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은 오래 전에 죽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꽃피워본 적이 있긴 하나”는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이 오래 전에 죽었든, 아니면 꽃피워본 적이 없든,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은 지금 기로에 서있다. 그 기로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철학, 인문서 선보여

대학 수능능력시험과 논술시험을 대비한 청소년 문학, 철학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고전소설을 망라한 다양한 시리즈는 출판사마다 자체적으로 ‘브랜드’ 화하고 있는 중이다. 13권으로 구성된 《청소년 철학창고》(폴빛), 30권으로 구성된 《30분에 읽는 위대한 사상가》(랜덤하우스), 사계절의 《주니어 클래식》(사계절) 시리즈를 비롯, 100권을 목표로 발간중인 자음과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30권을 출간한 자음과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시리즈는 저명한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으며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론》,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귀류법》 등 성인들에게도 어려울 법하지만, 다양한 사상과 사유의 논제들을 동화식 이야기를 통해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있어 여느 청소년 기획도서들과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이들 시리즈 도서는 학습 보조도서로서 기획돼 어린 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인문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편집과 디자인의 차별화와 쉬운 구성으로 청소년 독자에 어필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향후 인문서 독자층으로 유인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다양한 주제, ‘여성 핸드백’ 사이즈 문고판도 인기

문고판 인문서 출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책세상의 《책세상 문고 우리시대》와 《고전의 세계》는 인문서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리즈로 언급된다. 문고팀 문선휘 차장은 “독자들에게 책 읽는 맛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사회와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다양한 주제는 ‘사람들은 왜 날씬해지고 싶어 할까’ (우리시대 018 《다이어트의 성정치》), ‘개인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고전의 세계 043 《자유론》) 등을 통해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책세상 문고 우리시대》 시리즈는 고미숙, 선우현 등 신진 학자들과 소장학자의 활발한 참여로 최근 100권 출간을 돌파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철학, 정치, 사회, 경제, 여성학, 환경, 종교,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선정에 대해 문선휘 차장은 “우리시대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고판 인문서를 출간하는 곳은 책세상 외에도 살림출판사와 창행출판사, 시공사 등이 있다. 살림출판사의 《살림지식총서》는 2003년 6월 《미국의 좌파와 우파》를 시작으로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



바 스피박)까지 248권을 출간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다.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최재천 교수는 살림지식총서 출간에 즈음, “우리보다 앞서 지식 창출의 발걸음을 내디딘 나라들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문고 시리즈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끄세즈》, 독일에는 《레클람 문고》, 영국에는 《펍킨 북스》, 일본에는 《이와나미 문고》가 있다”며 “이제 우리에게도 《살림지식총서》가 탄생했다”고 격찬한 바 있다.

창해출판사의 《창해 ABC》 시리즈와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총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창의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맞선 시리즈로 평가된다. 또한 두 시리즈 모두 여성 핸드백 사이즈에 적합해 여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돌 정도였다.

《창해 ABC》는 《커피》 《맥주》 《와인》 《초콜릿》 등 여성 취향의 테마와 120페이지 안팎의 볼륨, 다양한 컬러 사진으로 20~30대 여성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시공사의 《시공디스커버리총서》는 1995년부터 출간을 시작 현재까지 123권을 출간되었다. 프랑스의 《데쿠베르 총서》를 번역한 이 시리즈는 과감한 화보와 신문식 편집으로 출간 당시부터 화제의 책이었다.

인문학 둘러싼 ‘학제적 성과’ 출판 속출

최근 인문학계와 어문학계, 과학계 등에서 학제간 연구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을

다른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제간 연구의 성과물이 출판계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11월 인문학자 도정일과 자연과학자 최재천이 함께 낸 《대담》(휴머니스트)과 서울대 국사학과 문중앙 교수의 《우리역사 과학기행》(동아시아)이 대표적이다. 번역서로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소소),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 이야기》(승산) 등이 있다. 최근에는 SF영화 속 과학 개념을 통해 물리학과 생물학의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과학, 영화와 만나다》(한승)가 나와 영화 좋아하는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만난 여승천 씨는 “흔히 인문학하면 어려운 철학이나 사상을 생각했는데, 과학이나 기타 학문과 관련한 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반가웠다”면서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양대 공학대학원 정진욱 교수는 “과학을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물리학의 개념을 일상생활로 응용해 잘 설명한 리처드 파인만의 저술과 같은 책들이 우리 필자들을 통해서도 곧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기만족 출판 지양,

낮은 자세로 독자 섬겨야’ 충고도

익명을 요구한 한 출판기획자는 “인문학 출판을 고수하는 사람들 중에 ‘이 책은 꼭 내야 한다’는 고집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만족만 추구하는 출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출판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인문학의 경우가 특별히 독자의 눈높이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 기획자가 저자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낮은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기만족을 위한 출판이 아닌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책이 본래 가진 함의와 가치들을 도외시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인문학과 인문학 출판의 부흥을 위해 혹은 발아를 위해 독자들과 호흡하며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게 많은 뜻있는 이들의 주문이다. ■

취재 정동석 · 송보경 기자